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2>



쿨한 사람이 되자

요즘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쿨(cool)'이란 단어가 있다. '쿨'은 요즘의 세태와 대중문화를 설명해 주는 핵심적 코드로 유행하고 있다. 원래 '시원한'이란 의미의 '쿨'이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멋있다, 세련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떤 제품을 소비하면 쿨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까지 나오고 있다. '쿨'이란 단어는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책 제목에도 쿨이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 가수 이름에도 쿨이 있다. 시원하고 멋진 사람을 '쿨한 사람'이라고 한다.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쿨한 사람들이 선호된다. 배우자가 바람이 나도 징징대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 보내는 여자야말로 요즘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쿨한 여성의 모델이다. 남편의 불륜을 보고도 단호하고 침착한 표정을 잃지 않는 힐러리도 쿨하다. 마음 속 분노와 욕망을 억누르고 겉보기에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쿨하다고 부른다. 원래 '시원하다'라는 말은 더위에서 벗어난 쾌적한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말인데 틀림없다. '쿨다'라는 말도 더위에서 자유롭게 된 상태를 지칭하지만 쾌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되지

고, 무지의 불꽃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 세 종류의 불꽃을 알지 못하고 중생들은 쾌락에 빠져 자신을 해치고 있다. 밤낮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관(不淨觀)을 닦아 탐욕의 불꽃을 끄고, 자비심을 지녀 분노의 불꽃을 끄고, 바른 지혜로 무지의 불꽃을 끈다. 3종의 불꽃을 소멸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3화는 손발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태운다. 평상시에 우리는 3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 3화가 우리 마음 속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3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3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탐욕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숨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탐욕의 불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단 탐욕의 불꽃이 왕성하게 타오르면 탐욕의 대상을 향하여 돌진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부처님께서 불구멍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탐욕으로 싸움이 일어나 서로 다투는 일을 자주 접한다. 분노의 불꽃에 휩싸여 자신과 주위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부부 싸움 끝에 화합에 집어 병화하여 가

가장 무서운 불은 탐욕·분노·무지의 불 三火 없으면 고통 사라지고 마음 시원

않는 것이다. 무더운 더위는 심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짜증나게 한다.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 사람들은 열대야로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져 주위 사람들과 다투기도 한다. 심한 폭염으로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축사의 가축은 죽어가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마저 잃게 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와 같은 열대의 나라에선 40도 이상의 기온이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한다. 작열하는 태양의 불벌 더위나 용광로의 열기는 가히 살인적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붓다는 이런 종류의 화염보다 더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불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탐욕의 불꽃, 분노의 불꽃, 무지의 불꽃, 이 세 가지 불꽃이 가장 무서운 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도 불교 경전에선 이 세 가지를 삼화(三火)라고 한다.

<이티뫼타카(Iituttaka)>에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삼화(三火)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세 종류의 불꽃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탐욕의 불꽃, 증오의 불꽃, 무지의 불꽃이 그것이다. 탐욕의 불꽃은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활활 타오르고, 증오의 불꽃은 삼생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활활 타오르

죽들이 모두 참사하는 경우가 분노의 불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무지의 불꽃은 탐욕이나 분노의 불꽃과 달리 더 은밀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다. 어리석은 행동은 항상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다. 어리석게도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게 되어 수많은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인종차별주의나 공산주의 등 무지의 소산으로 이것이 희생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중생들은 3화로 마음 속을 태우며 살고 있다. 따라서 고통의 원인인 세 가지 불꽃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지고 시원해지는 것이다.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도 그 땀감이 다하고 나면 꺼져 버리는 것과 같이 탐, 진, 치의 3화가 꺼진 것을 부처님은 열반이라 하였다. 3화를 소멸시킨 사람을 아라한 또는 붓다라고 한다. 붓다야말로 진정 시원한 열반을 성취하였으므로 쿨한 사람인 것이다. 속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바로 쿨한 사람이니 속이 3화를 간직하면서 외형적으로 멋지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더운 여름 물 한 사람이 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여름 선물이었을까?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무감각과 나태’ 성불의 敵



정관 스님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은, 화두가 잘 안 들리는 이에게는 염불선을 권한다. '관세음보살'이나 '올마니반떼출'을 일념으로 염하다가 시절인연이 무르익으면 '관세음보살'하는 이게 원가' 하는 의심이 자연적으로 든다는 것.



만 분명히 있기는 있어. 그러나 있다고 하면 상(相)에 떨어지고 없다고 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져. 그러나 '냉난자지'의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묘한 법이야.

스님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 자리, 최소가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 자리를 일러주기 위해 '차한 잔' 건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냉난자지의 그 자리를 탐구하는 거야. 불교는 독거락(獨居樂), 독거안식(獨居安息)을 추구해. 그러나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증득해야지. 최소도 모양도 색깔도 없는 냉난자지의 이 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자리가 아냐. 차다, 따뜻하다를 아는 그 자리는 흑언에게도 백언에게도, 초생에게도 벌레에게도 다 해당되는 자리야.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따뜻한 것은 따뜻한 것으로, 찬 것은 찬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래지(本來知). 본래부터 아는 자리, 그러니까 본래부터 성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나 나와 땅은 연(緣)이 없으면 따뜻한지 찬지 모르잖아? 연에 의해 나한테 닿아 인식이 생기면 그 인식 때문에 차다 뜨겁다. 산다 죽는다가 생겨. 그러나 인식을 벗어나면 죽음이 없어. 그러나 본래지에 죽음은 없는 거지.'

육신은 물거품 같은 것

생각해 보면 태(胎) 안에서 배운 것은 아니니.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 태중 이전부터 아는 이 자리는 그럼 어디에 있냐? 어디 있다 하고 고정시켜 버리면 그건 기독교 논리야. 동쪽, 북쪽, 서쪽 어디에 고정시켜 버리면 맞지가 않아. 어디에 있다고 짐을 짚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처소(無處所)야. 그런데 최소가 없지만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입에 응해주고 보고 싶을 때 눈에 응해 주잖아. 그렇지만 입에서 나왔으면 입에 없고, 눈에서 찾아도 눈에는 없거든. 없

만 분명히 있기는 있어. 그러나 있다고 하면 상(相)에 떨어지고 없다고 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져. 그러나 '냉난자지'의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묘한 법이야.

스님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 자리, 최소가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 자리를 일러주기 위해 '차한 잔' 건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냉난자지의 그 자리를 탐구하는 거야. 불교는 독거락(獨居樂), 독거안식(獨居安息)을 추구해. 그러나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증득해야지. 최소도 모양도 색깔도 없는 냉난자지의 이 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자리가 아냐. 차다, 따뜻하다를 아는 그 자리는 흑언에게도 백언에게도, 초생에게도 벌레에게도 다 해당되는 자리야.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이지 따뜻한 것은 따뜻한 것으로, 찬 것은 찬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래지(本來知). 본래부터 아는 자리, 그러니까 본래부터 성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러나 나와 땅은 연(緣)이 없으면 따뜻한지 찬지 모르잖아? 연에 의해 나한테 닿아 인식이 생기면 그 인식 때문에 차다 뜨겁다. 산다 죽는다가 생겨. 그러나 인식을 벗어나면 죽음이 없어. 그러나 본래지에 죽음은 없는 거지.'

생사가 없고, 시공이 없으며 공포도 없는 이 본래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깨워 주기 위해 스님은 <죽음이 없는 낙(樂)>이라는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혼탁한 세상, 방향을 잃고 돌아가는 세상에 바른 길을 열어 주고픈 마음에서다. 스님은 바른 견해가 절실한 시대에 와 있지만 그

2005 원일 불교카렌다 출시!! -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렌다 15년 전통 최고의 시설 최상의 제품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www.wonil-c.co.kr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론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할인)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 2년간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처: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하몰: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소: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33



차를 마실 때는 '차고 따뜻한 것을 아는 그늘'을 의식하라는 정관 스님.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상사에 도(道)가 살아있다고 누누히 강조하셨다.

것에 눈뜬 사람은 드물어, 부처님 법을 널리 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불교는 정견(正見)에서 출발해, 바로 보란 말이야. 육신은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다는 각성이 있어야 해. 진리는 영원하지만 육체는 잠깐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존재가치를 살릴 수 있는 거야. 무감각과 나태는 성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야.”

스님은 무감각한 사람은 성불할 수 없고 불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극단적인 말을 할 만큼 평소 ‘깨어 있는 정신’을 강조해 왔다. 올바른 감각이 있어야, 즉 깨어있어야 자기 방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각이 있으면 조금 이탈해도 곧바로 돌아올 수 있지만 감각이 없으면 길을 잃은 줄도 모르고 헤매게 된다는 것이다.

간화선의 생명은 의식

철저한 자기 관리를 위한 정관 스님만의 방편이 하나 더 있다. 매일 불(佛)자를 열 번 쓰는 것이다. 벌써 30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일과다. 그만큼 스님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살피고 정진에 게으르지 않다.

“간절한 신심이 제일 중요해. 신심은, 몸은 시한 부이고 결국 변한다는 ‘변함’의 인식에서 비롯돼. 우리의 몸이 늙음, 병들, 죽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정확한 인식 말이야. 오전에 먹던 김치가 오후에 맛이 다르면 우리는 그저 김치 맛이 변했다고 하지?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김치 맛만 변한 게 아냐. 우리 몸의 세포도 변했어.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변해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영원불멸의 자리를 찾게 돼. 신심은 불교의 첫 관문이야.”

스님에게 신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몸소 보여주시는 분은 은사 동산 스님이었다. “우리 스님의 특기는 신심이었어. 사람 몸만 빌린 것이지 그냥 사람은 아니냐 생각했을 정도였지.” 은사스님을 보고하던 스님의 눈길에 벽에 걸린 은사스님의 사진

에 한동안 머물렀다. 신심을 일으킨 후엔 어떻게 공부할 이어가야 할까?

“우리나라 불교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간화선을 해 보다 안 되니까 간화선 불신(不信) 운동이 나올 정도가 됐지? 간화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전체를 부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의적인 발상이지, 간화선으로 가야 사상(思想)이 나오거든.

사상이란 맑은 물과 같아, 밑에 빨 물이 있다 해도 맑은 물이 내려가면 빨 물이 차츰차츰 맑아지잖아. 간화선은 풍요로운 사상의 근원이야.”

“그렇다면 왜 일각에서 간화선 무용론이 일고 제3 수행법이 물릴 듯 밀려드는 것일까? 스님은 그 원인을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리에 대한 의식이 확고해야 간화선이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앉아 있으니 재미도 없고 갑갑해서 열이 올라 삼기병이 생기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야. 어떤 것이든 의문이 하나 딱 걸리면 그 의문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가 돼. 그게 화두야. 그런 고기가 낚시 바늘을 문 것과 같아. 낚시 바늘을 물고 나면 고기는 꼼짝할 못해.

의문에 걸리면 시간이 어찌 가는지, 세월이 어찌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자기 몰두에 심취하고 자기 성찰이 깊어지면 그것이 자기 낙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의문이 없으면 감각도 없고 아무 진전이 없는 거지.”

스님은 목조선, 간화선, 염불선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짚어 주며 간화선의 생명은 의식이며 그 의식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아서 간화선의 생명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님이 화두가 잘 잡히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의지적 작용으로 권하는 것이 염불이나 주력이다. 자동차 시동을 거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의문이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의지적으로 의문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염불, 주력을 권해. 염불선(念佛禪)을 하라는 것이지, 염불이면 염불이지 무

슨 염불선이 아니고 비판하는 스님들도 있지만 해보면 알게 돼. ‘관세음보살’이나 ‘올마나반메혹’ 주력을 꾸준히 해 보, 회두선이 되는 사람은 만 명에 한 명이 어려워. 그러나 화두가 안 될 때는 의지적 인 염불선을 하란 말이지.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 하는 이게 뭐가?’ 하는 의심이 생기고 그때부터 의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염불선이라고 하는 거야. 염불선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 해보면 분명해 돼. 내가 그 장본인이야.”

스님도 처음엔 염불로 시작했다. 풀음을 쫓기 위해 서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죽도록’ 했다. 염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다보니 염주 줄이 자꾸 끊어져 나중엔 철사로 바꿨지만 그것마저 끊어질 정도였다. 범어사 원효암에서 일주일 단식기도를 하며 주력을 하던 어느 순간 ‘관세음보살 하는 이 놈이 무언가 하는 의심이 올라왔고 스님은 동산 스님께 달려가 여쭙았다. “그대로 하면 돼.” 은사스님의 대답이 아니었더라도 스님은 계속 그 길을 갔을 것이라고 할 만큼 공부 힘을 얻었다.

자기 성찰해야 윤회 벗어나

“모든 존재의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야. 고통을 떨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지. 여기서 즐거움이란 맑은 즐기는 것과는 천지 차이야. 그 즐거움이란 앞서 말했던 죽음이 없는 낙을 찾는 것을 말해.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순간을 즐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고득락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이고득락이 결코 될 수 없는 길로만 가고 있던 말이지. 이고득락은 자기 성찰, 생각하는 나, 자기를 알고자 하는 나, 자기를 깨닫고자 하는 나를 일깨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증득하는 것을 말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이것이 자기 성찰이거든. 자기 성찰이 아니고서는 이고득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이고득락의 길로 가는 것이 불교야. 이고득락의 길로 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봐. 그러면 분명히 돼요.”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정관 스님은

정관(正觀) 스님이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늘을 보는 일이라고 했다. 이유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감사해서다. 매일 ‘불(佛)’자 10번 쓰는 것도, 아침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스님에게 모두 소중하고 감사한 일상들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독이 없고, 허전함이 없

고, 서도 기쁘고 앉어도 기쁘고 항상 기뻐야 돼. 그것이 윤회가 가는 길이야.” 스님은 최근 있따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자살 얘기를 꺼내며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스스로 목거락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실패자로 끝을 맺게 된다”고 덧붙였다.

1933년 경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195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57년 비구계를 수지했

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쟁계사 주지, 범어사 주지 등을 지낸 스님은 지난 7월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불국토’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가슴만 열지 않으면 그게 바로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불국토의 설립 이념인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신심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의 길로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연관 스님

연관 스님은 세상에 드러내기를 꺼리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나는 지리산 실상사 산내 암자 인 약수암에 주석하고 계실 때 처음 보았다.

그 때 나는 해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해인>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불교계는 승속을 막론하고 현실참여를 매우 꺼리는 분위기였다. <해인>지는 시대의 조류를 잘 반영하며 또 사상적으로 잘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온 몸을 던져 부처님의 사상을 몸소 보이는 선지식을 필자로 주로 발탁하였다.

<해인>지의 ‘호계삼소(虎溪三笑)’라는 난은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 수행을 하는 제방 스님들을 소개하는 지면인데, 연관 스님을 취재대상으로 잡았다. 그 시자의 영향력을 잘 아는지 연관 스님은

는 박학다식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깊은 밤에 그 아람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밤샘을 해서 인터뷰 분량을 대략 맞췄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아침에 번갯불에 콩볶듯 사진기 셔터를 눌렀다. 그래서 상의가 승복 대신 파카를 입은 연관 스님을 <해인>지에 실었다. 방에서는 감히 사진기를 꺼내 보지도 못했다. 사진기를 들기만 하면 아예 말론 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니 사진 찍는 것은 엄두도 못했다. 스님은 후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까봐 승복위에 파카를 덧입은 것이었다. ‘호계삼소’에서 다른 스님들의 사진은 단정한 승복차림으로 장식하고 있지만, 연관 스님의 ‘불량(佛)해 보이는’ 차림새의 사진이 <해인>지를 통해서 불교계 언론에 처음으로 실리게 된 사연이 이었다.

그 뒤로 연관 스님 동정이 가끔 불교계 언론에 실리는가 싶더니 어느 날 다시 중적을 감쌌다. 우연히 들은 바, 지난 동안가는 봉암사 선원에서 참학하였다고 했다. 두루 섭렵한 교학을 바탕으로 마음공부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게다. <해인>지로 인해서 연관 스님과 인연이 된 후

두루 섭렵한 교학 ‘탁월’ 권위의식 없고 소탈·검소

로는 남원 근처를 지나면 실상사 뒤편의, 소나무 아래 아담하게 황토로 짓고, 지붕은 낙엽송으로 운치 있게 울려놓은 스님의 작은 집에 가끔 들러서 차 한 잔 얻어 마시기도 한다.

연관 스님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고관대적이 아니라 들꽃 같은 민초들이다. 스님은 누구와도 소탈하게 지낸다. 권위의식이 전혀 없고 법랍 따지기를 싫어한다. 사람을 편하게 대하고 아랫사람들에게도 스스럼없이 대한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어두운 밤이면 전기도 사람이 있는 곳만 밝힌다. 이런 젊은 집을 떠나서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의 의미없이 아끼는 것은 탐욕을 불러 일으키지만 있는 그대로 처처에서 만족하고 과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이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 만장전사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도반 · 수행 스님과 함께 연관 스님이 상경해서 참관하고 내려가려고 하던 차에 그분들과 맞닥뼉했다. 그런데 이분들 대화가 남편까지 가는 고속버스 출발하는 차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로 서로 의논 중이었는데, 그 대화내용이 내게는 신선하게 들렸다. 연관 스님은 풍곡수나 한 그릇 먹고 가자고 했다.

옛날 한 도인이 이렇게 말했다. 한 객이 도(道)가 뭐냐고 물으니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잔다”고 답했다. 쓸데없는 망상과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야말로 오우치족이며 정민이 아닌가 싶다. ■ 해인사 원담암



그림·문병성

도무지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실상사 도반 스님으로부터 약간의 사전지식을 습득한 후, 실상사에서 셋길로 한참을 오르다 보니 탐수룩한 차림의 스님이 ‘누구요?’ 하면서 나왔다.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스님은 “나는 도무지 알릴 것도, 또 아는 것도 없다.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수고했으니 잠은 재워 주겠다. 그러나 자고 내일 새벽같이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떠날 수 있는가? ‘서움에서 여기까지가 어딘데, 어림없는 말씀이 지’라고 다짐하며 짐을 풀고 나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스님께 얘기를 유두했지만 연관 스님은 속내를 잘 드러내 주지 않았다. 주평 스님이 저술한 <죽창수필(竹窓隨筆)>을 번역한 그야말로 실력 있는 스님인데도 한사코 심도 있는 대화를 마다했다.

서재 책상위에 놓여있는 책을 훑쳐보니 벌써 번역작업에 들어간 지도 한참인 책이 깨알처럼 적혀있는 공책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한 실정으로 막무가내 답답한 소리를 해대고 무식함을 드러내니 그때서야 스님은 본인도 모르게 우리의 무식함을 잡아주기 위해 속내를 조금씩 드러냈다. 겨우 조금씩 드러나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복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달라이라마 설법과 불교성지순례)

- A팀 기간: 10월 24일~11월 1일 9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자이푸르-델리(설법)-아그라-인천)
B팀 기간: 10월 26일~11월 4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설법)-아그라-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C팀 기간: 10월 25일~11월 3일 10일간 (동참금 22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델리(설법)-산치대탑-아잔타,엘로라석굴-뭄바이-인천)
D팀 기간: 10월 26일~11월 8일 14일간 (동참금 245만원) (인천-델리(설법)-기원정사-뭄비나-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 라즈기르-보드기아-아그라-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 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7년간 공부한 정전스님 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입보리행론은 정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합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4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4년 10월 27일 ~ 10월 30일(4일간)
장소: 인도의 수도 델리
주관: 여수 석천사 石泉寺(전옥스님 061-662-1607)